

# 경주남산 벌목 '졸속행정'

## 세계문화유산 등재 앞두고 '악재' 97년 산불흔적도 그대로 방치

유네스코가 경주 남산일원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여부를 결정키 위해 오는 10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남산유적지 주변의 소나무와 잡목 5백여 그루가 무리하게 벌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97년 산불로 70.3ha 12만2천그루의 소나무가 불탄 흔적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다 벌목 사건까지 불거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암운을 던져주고 있다.

경주시(시장 이원식)와 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는 '경주남산유적 종합보존정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노천분상에 이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관을 좋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삼릉굴 국사굴 용장굴 등에 산재한 20여 유적지의 10년 이상된 소나무 수백 그루를 잘라냈다.

조경 25cm 가량의 나무와 바위 틈에서 운치있게 뻗어있던 나무들도 벌목되었으며 10여 그루에서 30여 그루씩 잘려나간 유적지는 곳곳에 잘린 부분이 흉하게 드러나 있고, 배어낸 나무들도 한쪽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폭4km 길이8km에 36개 골짜기를 가진 남산은 4백여개의 불교유적이 흩어져있어 지난 85년 6백만 평에 달하는 전체면적이 사적 제 311호로 지정되었으나 무허가 벌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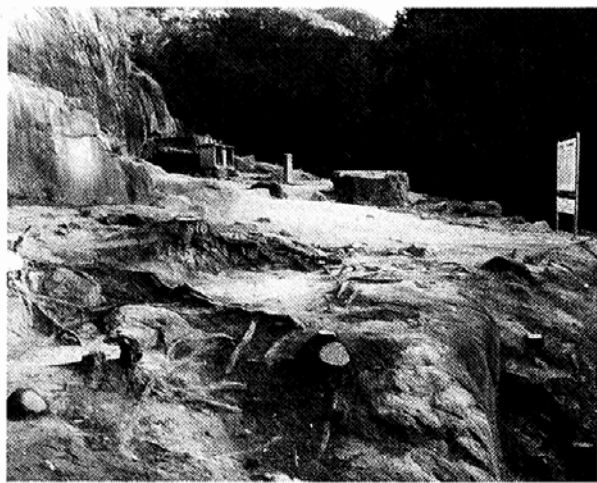
가 난립해 있다. 시민들은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남산정비사업에 녹장을 부리다 유네스코 조사가 임박하자 신중하든 없이 벌목을 단행하는 등 졸속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남산을 20여년간 다녔다는 한 경주시민은 "남산의 석질은 여물지가 못해 풍화가 잘되는 편"이라며 "비바람을 막아주던 나무들까지 벌목해 오히려 훼손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6월 경주 남산을 비롯 대릉원, 월성, 황룡사, 산상지구 등 5개지구 8백60만 여평에 대해 세계문화유산지정을 신청했으며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사적지회의(ICOLOS)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유구오 니시무라교수(동경대 도시공학)를 경주로 파견해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2월의 실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6-7월에 열릴 집행사회에서 등재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등재권고로 판가를 받으면 12월에 열린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쳐 등재가 최종확정된다.

경주=이윤호 기자 (yilee@buddhapia.com)



경주 남산의 심릉골 선각각존을 진입로 및 전면과 측면의 수목 30여 그루가 벌목되어 황량하다.

## 포교우수법사 포상제 추진

### 군불교진흥회

군불교진흥회는 올해 군법사 군종병에 대한 사기 진작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포교의 수법사 포상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25일 개최 예정인 정각스님(법명종 종정)의 회장취임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올해 사업은 각 종단 포교부장들과도 긴밀한 연계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군종병 포교를 위한 후원자 확대를 위해 면담 전화 방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군법당이 없는 군부대에 군법당을 건립하고 20년 이상된 군법당

###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불자 12명 명단포함

총선시민연대가 1월24일 발표한 공천반대 인사명단 68명중 불자 인사는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3월3일 현재 국회 정각회 소속 불자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도갑(새천년민주당 前의원), 김명운(한나라당, 전국구), 김운환(새천년민주당, 부산 해운대·기장갑), 김정수(한나라당, 부산 진읍), 김태호(한나라당, 울산 중), 노기터(한나라당, 경남 창원), 박철언(자민련, 대구 수성갑), 서석재(새천년민주당, 부산 사하갑), 이상배(한나라당, 경북 상주), 이인구(자민련, 대전 대덕), 정재철(한나라당 前의원), 함종현(한나라당, 강원 원주갑) 등.

김재경 기자

보수 및 법당 사무용품 지원 등 군법당 지원업무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금년부터 지원법사 제도를 도입해 군종법사가 없는 부대를 파악해 법사가 직접 찾아가 법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포교사단과도 연계해 법사 포교사 한명당 한 부대를 지속적으로 맡아 주말에 법회를 운영함으로써 군종병 포교에 박차를 가한다. 또 현지 중사, 상사 불자들을 규합해 통신교육 등을 통해 군포교사로 양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백령도에서 군불자 자녀들을 위한 수련대회, 군불자를 위한 설악산 캠프, 승병장들의 활동을 새봄에 조망하는 세미나, 호국유령음악제, 군종병 교육등을 계획하고 있다.

군불교진흥회는 정관도 일부 수장해 운영을 합리화, 투명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연 기자

## "봉사-지계-법회동참 신행근간"

###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세미나

재가불자의 바른 신행 정립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신행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1월 2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불교 전통에서 살피 본 재가불자의 신행'이란 주제로 제1차 신행혁신 세미나를 열었다.

'초기불교의 가르침과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전재성 한국불리성전협회 대표는 "보편적인 불자의 가르침 자체를 신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교의식의 생활화, 일상생활의 신앙화'를 강조했다. 전 대표는 "초기 경전에는 일상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가르침이 가득하다"며, 108명의 경우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귀로 만들어 매번 절할 때 낭송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종효교수(전남대 철학과)는 '대중불교에서의 재가불자의 신행'이란 발제문을 통해 해탈을 얻기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혜시(惠施) 지계(持戒) 다문(多聞)'을 제시했다. 봉사·자선활동(혜시), 계율실천(지계), 법회참여(다문)야말로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바람직한 재가불자의 신행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법회는 교리강좌나 축원불공이 아닌 참회와 수계를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월27일 열린 중앙신도회 신행혁신 세미나.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정호영교수(충북대 철학과)는 "불교의 윤리적 성격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종교적 성격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자비를 강조한 나머지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경준교수(동국대 불교학과)도 "진정한 불국토 건설을 위해선 사회적 실천과 개인적 수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 임동현 기획실장은 "이번 세미나가 신행혁신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3·4월에도 세미나를 개최해 신행혁신의 방향을 정립한 후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신도들과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올해를 '신행문화 혁신의 해'로 정하고 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3차례 걸쳐 실시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능관스님 입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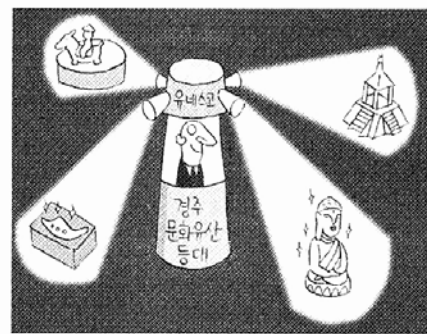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윤봉당 능관스님 영결식이 1월 25일 서울 경국사에서 중앙총회장으로 임수됐다. 영결식에는 경국사 조실 지관스님과 중앙총회위원장 법등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1월 23일 입직한 능관스님은 62년 지관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6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해인사 강원 대교과와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문경 대승사 주지와 조계종총무원 교무국장 사업부장·사회부장, 8·12대 중앙총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 현대만평 박구원



잘 보존돼야...

종교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9개국의 종교지도와 현황을 통해 단일국가, 다종교국가, 우세종교국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교정책을 분류한 뒤 외국의 종교정책도 분석했다.

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불교 기독교 등 우세종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종교를 우대하는 것은 사회에 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 종교간 갈등이나 사회적 분쟁을 막기위한 종교법입법의 제정도 필요하나 자칫 종교자유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불교문화재 보호 국가적 지원"

### 문화부보고서 '해외 종교현황과 제도'

문화관광부는 1월 24일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종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해외각국의 종교현황과 제도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가 21세기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펼쳐야 할 종교정책 방향을 밝혀 눈길을 끈다.

보고서는 문광부에 의뢰에 따라 정갑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과 류성민 한신대 종교학과 교수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해 펴

냈으며, 연구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고유한 종교적 전통과 전형적 다종교 상황에 따른 종교정책을 수립하고, 구미 선진국과 같이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실천사업으로 △한국 종교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종교정책의 적극적 시행 △종교단체의 대사회적 활동 권장 △종교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 조계종 소장 성보 5만5천건

### 총무원 문화부 첫 집계

조계종 본말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는 총 5만 5천여 건이며, 1910년 이전에 조성해 지경 가치를 지닌 성보는 1만 2천여 건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수치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성보문화재 관리 및 보존의 대계(大計)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실시한 6개 교구본사 소장 성보문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해 집계한 것.

이 조사에서 성보문화재는 사찰

당 평균 30건이며, 이중 22%(6건)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계종 1,840 곳의 본말사는 총 55,320건의 성보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정 가능한 성보는 12,148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화부는 이번 추정 집계를 토대로 본말사에 소장된 성보문화재 정비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올해 해인사와 화엄사 본말사에서 정밀실측 및 도면작성, 탁본, 감정 등을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 조계종 18기 행사교육

#### 3월12일부터 해인사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연)은 19일 행사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제 18기 행사교육원을 합천 해인사에 열기로 했다.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23일 동안 열리는 제18기 행사교육원은 사미·사미니 율의, 초발심자경문, 율의문, 조계종사 등 10개 과목이 개설되며 교수사는 도법, 혜능, 정락, 무관, 무비스님 등이다.

김원우 기자

삼·부·농·신 ·삼·부·농·산·순·슈·기·재·배·약·초·만·슬·생·산·하·고·있·습·니·다.

#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 삼물초의 놀라운 성분들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액을 돕고 모혈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황토삼백초 건조

◆ 차나 승냥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씌이어서 열매가 열리게 하려는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르니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외욕이 없으신분
-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김봉서 원장)

**삼부농신**  
SAM BU Fa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